

죽은 자를 살리러 오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1:1-16)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 당할때가 있다. 왜 그런가 질문도 하고 때로는 일정기간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도 있다. 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예배이다. 기도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와 기도는 너무 중요하다. 정말로 준비하고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려야 한다. 그리고 본문 같은 것들도 일찍 와서 읽어보시고, 생각해보시고 해야 한다.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이번 주간에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씀에 임하고 예배에 임해야 한다.

오늘도 아주 중요한 제목을 주셨다. 예수님이 이땅에 왜 오셨는가 하나까 죽은 자를 살리러 오셨다.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으로 놀랍다. 나 사로가 죽어서 냄새가 나는데 살려버렸다. 참 놀라운 일이다.

며칠 전에 어느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다. 아이티에 있는 어느 여자 선교사님이었다. 이 분이 코로나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 그 이전에 간증을 들 어보면 이 분이 죽을 분이 아니었고, 거기는 약도 없고 그냥 견디는 곳이었다. 그래서 죽음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을 돌보고 하는 선교를 하는데, 그 관계된 분들에게 우리 후원자는 누구라고 알려주고 다 연락처도 알려주고 죽을 준비를 하는 것이다. 딱 죽으려고, 숨이 마지막이라는 그런 지점에 도달하였다. 그런데 그 때 갑자기 엄청난 공포가 몰려오는 것이었다. 상상을 못하고, 설명도 불가능한 엄청난 공포가 몰려오더라. 어떻게 되었겠나? 어찌 할수도 없고 꿈쩍도 못하는 것이었다. 그 때 이 선교사님에게 한 생각이 들어왔다고 한다. 나는 구원 받은 자야. 나는 천국으로 가잖아. 이 생각이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싹 평안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물론 안죽었다. 간증을 하러 나왔으니까. 그 이후에 그런것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 말기로 새로운 사역도 시작하였다는 그런 간증이었다.

이런 순간에 아무도 힘이 되지 않고, 답이 없는 그 때에도 하나님이 답이 되는데, 왜냐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러 오셨기 때문이다. 언약이 되기를 바란다. 은혜가 들어오기 바라고, 이것이 평생 잊지 않는 언약이 되기 바란다. 그냥 죽은 자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은 인생을 살리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많이 부족하다.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와서 그러나 죽은 인생이 살아나는 것을 한두번 본게 아니다. 그 사람안에 복음이 들어가서 살아나는 것을 한두번 봤나?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금도 누구든지 이 말씀듣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살아나는 것이다. 인생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깨진 가정 살아나는 것을 한두번 봤나? 복음 전하면? 멀리, 예를 들면 남미나, 독일이나 한국에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 전하고 언약을 전하면 살아나는 것이다. 이번 주에 확실히 언약되기를 바란다. 내가 살고, 거기서 끝나는게 아니라 증언되어야 한다.

교회는 전도가 목적이다. 많은 것이 행해지지만 교육, 기타, 교제 등 다 행해지지만 목표는 전도이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전도자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전도자를 보내신다. 보내실 수밖에 없다.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전도자를 키우는 훈련이 있어야 하고 돕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이 일을 대를 이어서 해야 되고 주님 오실때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렘넌트가 중요하다. 그래서 당연히 렘넌트는 교회가 키워야 하고 교역자들도 가장 마음에 담아야 한다. 담임목사를 비롯한 모든 교역자들이 자기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런 중에도 렘넌트에 대해서는 남다른 생각과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렘넌트는 시간을 두고 성장하고 배우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면 안된다. 그래서 영성도 중요하고, 지성, 기술, 기능 다 중요하다. 여기에 중직자들이 아주 중요하다. 렘넌트는 아직 성장해야 하기 때문에 판단력이 많이 부족하다. 경험도 부족하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이 때, 주위에서 중직자들이 도와주고 지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중직자들은 전도자와 함께 교회의 복음 운동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다. 어떤 중직자들은 목회자보다도 더 중요한 일을 한 사람도 많이 있다. 우리 중직자 훈련때 한국의 어떤 장로님 간증을 지난번에 들었다. 그 장로님 간증 듣는데 내 마음에 생각에 이분은 목사보다 낫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대표적 중직자 오바다가 나온다. 엘리사를 통해서 한 많은 것들중에 대표가 도단성운 동인데 그 운동의 기초를 깬 사람이다. 엘리야, 엘리사 사역의 아주 근본적인 것을 이 오바다 중직자가 했다고 봐야 한다. 신약시대에는 대표적인 사

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식주인 가이오같은 사람이다. 그 때에는 굉장한 핍박과 함께 복음운동이 성장하던 때였다. 그 당시에 이 분들이 눈에 안 보이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봐야 한다. 여성들도 아주 중요한 중직자들이 많이 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도 생각해 보라. 그 당시에는 그런 결단 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런데 남자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일을 했다. 그리고 이 분은 메시지가 아주 정확했다. 아들에게 첫 뉘날까지 창세기에 관한 것을 정확하게 전달했다. 모세는 그 이후에 왕궁에서 살았기 때문에 더 이상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다. 그 이후에 왕궁에서 도망가 광야에 갔다. 그 때 성경학자들이 미디안 광야에서 창세기를 기록했다고 그렇게 해석한다. 왕궁에 누가 복음을 전해 줬겠나? 모세에게.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누가 가르쳐 주는가?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들었던 것이 그대로 그 머리에 박혀 있는 것이다. 요게벳은 메시지도 아주 정확하고 진짜 기도했었다. 이유를 아니까. 이 아이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야 한다는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정말로 기도 했을 것이고 메시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가는데 한나가 깨달았다. 진짜 나실인이 필요하다. 온 나라가 영적으로 다 죽어가는데 필요한 사람 하나 있는데 정말 언약을 가진 사람,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 나실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한나가 깨달았다. 실제로 사무엘이 다 했지만 근본은 한나가 다한 것이다. 하나의 기도와 언약이 시대를 뒤집었다고 해석해야 한다.

라합은 기생이다. 영어성경에는 창녀라고 해석했다. 그런데 그럼에도 판단력은 아주 하버드 수준이다. 소문을 듣고 답이 딱 났다. 이것은 우리가 백날 붙어봐야 안된다는 답을 딱 내고 민족을 배반하고 하나님께로 갔다. 남자도 결단하기 힘들다. 잘못 잡히면 죽기 때문이다.

이처럼 교회는 중대한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소원과 생각이 일치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이유가 일치하는 것이다. 생각이 통하고 이유가 일치해서 진짜 생명걸고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많은 중직자들 나오기 바라고, 여성중직자들중에서도 시대적인 중직자가 많이 나오기 바란다. 지금 세상이 바빠기 때문에 남녀 구분이 없다. 이번 노회에서 두분의 여성이 목사로 안수받았다. 여성안수에 대해서 말이 많다. 여자가 안수받아서 목회하면 되냐 하는 생각이 여전히 한국에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지금 남자 여자가 문제가 아니다.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리냐 마느냐가 문제지. 그래서 죽은자를 살리러 오신 그리스도이다. 이게 목표지, 지금 남자나 여자나 무슨 문제인가? 여하튼 우리가 진짜 눈 딱 열고 언약 잡고 후대키우고 해서 미국, 남미, 다민족, 렘넌트 하는 교회가 되기 바란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도 어른만 바라보지 말고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교회 전체, 가정을 살리고 언약잡고 기도하는 것이다.

1. 죽은 자를 살리러 오신 그리스도

이 말씀이 내게 언약되면 살아난다.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 그리스도는 죽은 자를 살리러 왔어 언약되면 내 인생은 살아난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러 오셨기 때문에 내가 언약되면 살아나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러 오셨다. 생명 뿐 아니라 인생과 마음과 생각도 주님은 살리신다. 가정과 자녀와 경제도 하나님은 살리러 오셨다. 하나님이신데 못 살릴게 뭐가 있겠는가? 전도, 선교, 렘넌트, 제자 모든 것을 다 살릴 수 있다. 이것을 언약으로 잡고 우리와 함께 우리 주위가 살아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본문 4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병이 난 것을 보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이 병으로 인하여 아들이 영광을 받을 병이라고 말씀하셨다. 죽은지 나흘되는 날 갔으니, 이들을 유하고 갔으니 이 말을 했을 때 나사로가 죽을수도 있다고 시간을 계산해 볼수 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는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에게도 이런 병이 있을 수 있다. 나중에 치유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병이 있다. 그때 예수님은 진짜 그리스도라고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리고 얼마전에 요한복음 9장의 맹인도 마찬가지였다. 이것은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다. 결론이 뭐가? 실로암.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야. 오늘 본문 11장 42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온다. 나사로가 왜 죽었는가?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고 하심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이다. 죽은지 오래되어 냄새나는데 살려버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로 알게 하기 위하여 일부러 죽었다는 말이다.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들 많이 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이라고 믿어야 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우리 인생에 많이 비유한다. 광야에서 일어난 모든 문제는 전부다 사람들이 믿도록 하기 위하여. 광야에서 일어난 모든 문제는 그 사람들을 믿음의 서밋 만들기 위하여, 다른 이유 하나도 없다. 물론 오늘도 걸어가야 하니까 발 아프고 그런 것은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은 참으면 되는 것이고 성경에 기록할 것은 아니다. 왜 난데 없이 흥해가 나타났는가? 너는 내가 누군지 알아야 할 것 아니냐? 그래야 가나안에서 나를 섬기지. 너는 그날 저녁에 발랐던 언약의 피가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 아니냐? 그래야 가서 우상숭배 안하지. 가데스 바네아 그 날 저녁에도 밤새도록 울었다. 중간중간 문제가 많이 있었다. 문제 때문에 우리가 죽었구나 하는 사람들은 전부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굉장한 메시지이다. 지금 내게 오는 이 어려움은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려나? 생각하면 그 사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지금 우리의 가나안 땅은 상징적으로 표현된 것이지만 지금의 가나안 땅은 그리스도 누리고 행복하고 증인되고 정복하는 것인데 거기 못 간다.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구나 하면.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또 뭐를 나에게 가르치시려고 하지?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서밋이 되는 것이다. 광야에서 실컷 고생하고 힘들다 힘들다 한 사람은 결국 가나안 못 들어갔다. 그러면 결국 땀인 것이다. 우리가 왜 사는가? 가나안 땅은 지금으로는 세계 복음화이다. 그것을 못 했어. 왜냐면 문제에 사로 잡혀서 나는 왜 이래요 하면서 눈을 못 뜬 것이다. 눈을 뜨는 것이 서밋인데, 눈을 못 떠서, 그게 아니지. 이게 안된 것이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 못하는 것이다. 결국 가나안 못 들어갔다. 지나고 보니까 아무 문제 아니다. 오히려 깨달으라고 준 건데, 눈을 뜨고 언약을 잡고 승리하고 정복하고 너는 세계복음화 하라고 이걸 위해 문제를 줬는데 문제에 눌러서 나는 왜 어렵냐고 평생 그거 하다가 세월 다 보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가면 얼마나 억울한가? 그래서 땅을 치고 울어도 그 때이라도 눈을 떠야 한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는가? 은혜 받으러 왔는가? 말씀 하나 들으러 왔다? 아니면 예배 참석 자체가 목적인가? 성경은 그래 하지 말라고 한다. 언약을 잡고 눈을 뜨고 내가 뭐를 원하는지 니 생각이 들어가라는 것이다. 내가 한번씩 헌금에 적힌 기도제목들 읽어본다. 이해는 하는데, 그거보다 한계단 더 올라가야 한다. 진짜 믿어야 한다. 천국 있다. 그걸 믿으면 천국에 맞게 살아야 한다. 그게 지혜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니 너무 감사해. 그것은 유치원이다. 은혜받는거 중요하다. 깨닫고 들었으면 기도 안해도 응답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이런 중직자 나오고, 렘넌트 나오기 바란다. 진짜 이런 전도자가 나와야 한다. 이게 인생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나중에 이거 말고 아무것도 의미 있는게 죽을 때 되면 없다. 그래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을 더 기다렸다. 7절에는 이제 시간이 되어서 가자고 한 것이다.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치는 데 거기를 가려고 하냐고 하였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메시지를 날렸다. 지금은 낮 12시다. 왜냐면 내가 세상의 빛이고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고. 낮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 낮이고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않고. 그리고 밤에 다니면 그 사람 안에 빛이 없으므로 실족하느니라라고 하였다. 그러면 밤에 다니면 뭔가? 예수님 없이 사단과 다니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안다니니까 그 사람 안에 빛이 없으므로 실족하는 것이다.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고 메시지이다. 걱정이 많이되냐? 나와 함께 있으면 괜찮아. 이것이 결론이다. 니가 다른 사람과 같이 가면 실족한다. 니가 지금 나하고 같이 안가면 실족이 되는 것야. 그러니까 걱정하지마 따라와. 내가 누구냐라는 것이다. 그리고 11절에 이 말씀을 하고 난 후에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내가 깨우러 간다고 하였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예수님이 일부러 하신 말씀 같다. 말 안하고 앞서 가면 따라올 것이기 때문에. 첫째는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려고. 나중에 역전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때 제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진짜 그리스도 믿게 하려고. 그래서 12절에 보면 당장 제자들 반응 나왔다.

그러면 안가도 되겠네요. 일어날 것일까. 그래서 대화가 안되니까 바로 이야기 하셨다. 죽었다. 이것이 14절이다 그리고 15절에 이유를 설명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그곳에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한다고 하였다. 예수님이 거기 있었으면 나사로 안 죽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거기 없어서 나사로 죽었고, 나중에 가서 살리실것인데 그것은 나를 위하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그리스도 알게 하려고 한 것이다. 그런데 도마는 끝까지 간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간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가서 돌맞아 죽으러 가자고 했다. 많이 부끄러웠을 것이다. 그래도 답이 더 많이 났을 것이다. 실수했구나. 죄송합니다. 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러 오셨다고 말씀하셨다. 죽은 우리의 인생을 살리고 죽어가는 내 마음과 생각을 살리러 오셨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내가 너를 살리겠다. 너는 나에게로 오라는 것이다. 언약으로 잡아야 한다. 내 힘으로 안되는 사람들은 언약 잡고 발버둥이라도 쳐봐라.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지 말고 믿기만 하지 말고 언약으로 잡고 발버둥 쳐야 한다. 그냥 한주 한주 메시지 듣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다. 오늘 이 주간 살아갈 말씀을 잡고 도전을 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그렇게 하는데도 말씀이 움직인다. 왜냐면 말씀은 살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고백하면, 어쭙잡게 해도 역사하게 된다. 말씀이 모든 것의 답인 것을 믿는가? 사실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전도를 말씀으로 하신다. 맞는가? 그러면 잡아야 한다. 언약으로 잡으면 우리가 살아난다. 왜냐면 살리러 오셨다. 혹 죽은지가 오래되어 냄새가 나도 필요 없다. 인생 살아나는 것이다. 인생 뿐 아니라 마음과 생각도 죽어서 오래 되어도 상관 없다. 언약 잡으면 살아나는 것이다. 자녀, 경제, 모든 것 마찬가지다 불가능은 없다. 죽어서 썩었는데 지금. 전도, 선교 다 담혀서 썩어 버렸다. 필요 없다. 그리스도. 주님은 하실 수 있다. 믿는가? 언약 잡기 바란다. 확실하게 언약 잡고 죽으면 죽는 것이다.

2. 우리의 평생 소원

우리는 뭐를 위하여 사는가? 무엇이 가장 가치가 있는가? 그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과 통하면 공짜 인생이 되는 것이다. 가만히 놓고 있는데 역사 일어나는 것이다. 40절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였다. 42절은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하는 것이다. 44절에는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셨다. 얼마나 감사한가? 어디에 마음이 잡혀서 못 움직인다. 생각이 늘 돈에 잡혀서 못 움직인다. 그리스도 누리면 어떻게 되는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이런 저런 어려움에 우리가 많이 잡혀 있다.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그것이 그리스도이다. 우리의 평생 소원은 우리의 인생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이 보다 더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죽은 자를 살리러 오신 그리스도 믿으면 살아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아닌가? 나사로가 수족을 베로 동인채로, 유대인들의 장례법 보면 베를 가지고 몸을 감는데 감은 상태로 나사로가 나오는 것이다. 웬만한 사람들은 기절했을 것이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이 때 주님이 조용히 말씀하셨다.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이게 인생의 행복이다. 이 영광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일 한가지 있다.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다.

오늘 이 사건의 목표가 이것이다.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 9장의 맹인은 확실한 증인되었다. 성경중 안다는 바리새인들이 이야기 해도 필요없다. 확실히 답 났다.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 되는게 평생 소원 아닌가? 땅에는 이것 말고 가치 있는일 없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소원이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나는 너의 그리스도라고 말씀 주시는 것이다. 지속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우리는 많이 누리고 많은 곳의 증인되고, 이게 축복이다. 우리가 캠프를 지나면서 많은 곳에서 이런 중요한 문들이 열리고 축복이 열리기 바란다. 그래서 결국 미국, 남미, 렘넌트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237 해야 한다. 남미에는 5천 종족 많이 있다. 우리 이거 해야 되지 않겠나? 이걸 위해서 그리스도, 하나님 오력을 주세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세요. 이주간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잡음으로 우리 인생의 죽어가는 많은 부분들이 살아나는 축복이 있기 바란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셨다. 이 주님의 축복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한다.